



우리자신을 사랑의 도구로 여전히 드리고 있나요?

주 리 애

(C.C.C 사랑의 호스피스실무책임/한국호스피스협회전남지부장)

달력을 넘기면 벌써 6월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그동안에 만난 사랑의 호스피스 가족 모두를 생각하니 눈물, 아픔, 사랑, 정성, 소망, 수고, 감동, 희망, 고마움, 등의 단어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2004년도에도 모두가 행복합시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라며 시작하였는데...다짐했던 대로 정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나 스스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봉사자들과 환우들을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호스피스 봉사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울리는 팽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자칫하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다보면 무더질 수도 있고 소홀히 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을 때를 생각해봅니다.

1995년, 광주에서 C.C.C.사랑의 호스피스를 발족할 당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는 표어 아래 가정이건, 병동이건,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들 곁에 달려가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호스피스 사역을 한지 벌써 아홉 해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낮 동안 환우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간보호센터를 주셨고, 인생 여정 끝자락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섬겨야 하는 노인복지회관 까지 없어주셨습니다. 거기다 더 큰 사랑의 꿈을 꾸게 하셔서 이제는 이땅에서 마지막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호스피스홈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호스피스운동을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자신을 사랑의 도구로 드리기’로 기도를 모았던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환우들을 방문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처음 임종을 맞이한 환우를 보며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천국으로 보냈을 때의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섬김은 돈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6월의 문을 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봅니다.

사랑으로, 무슨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